

〈스포츠칸〉동방신기 3인 중국에서 사기혐의 피소!

입력 2009. 11. 19. 20:56 · 수정 2009. 11. 19. 20:56



北京仲裁委员会

BEIJING ARBITRATION COMMISSION

地址: 北京市朝阳区建国路118号招商局大厦16层 Address: 16/F China Merchants Tower, No.118 Jian Guo Road,
 邮编: 100022 Chao Yang District, Beijing, 100022 China
 电话(TEL): +8610-65669856 Website: http://www.bjac.org.cn
 传真(FAX): +8610-65668078 E-mail: bjac@public.bta.net.cn

关于(2009)京仲案字第 1577 号仲裁案 受理通知

北京九新世纪文化传播有限公司:

本会收到你方于 2009 年 11 月 17 日递交的以 (株) WeSopPlus Co., LTD (中文名称: 羽霞创美株式会社) 为被申请人的仲裁申请书及附件一式五份。本会依据双方于 2009 年 6 月 8 日签订的仲裁协议及有关法律的规定, 于 2009 年 11 月 17 日决定受理。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 一、本案适用本会 2008 年 4 月 1 日起施行的仲裁规则第八章国际商事仲裁的特别规定;
- 二、随本受理通知向你方送达本会 2008 年 4 月 1 日起施行的《仲裁规则》及本会仲裁员名册, 请自收到本受理通知之日起二十日内向本会提交约定仲裁庭组成方式及选定仲裁员的书面意见; 如需要本会提供首席仲裁员候选名单, 请自收到本受理通知之日起五日内向本会提出, 但无论本会是否提供首席仲裁员候选名单, 都不影响上述你方选定仲裁员的期限;
- 三、因本会采用电子化办公, 为提高办案人员的工作效率, 如你方向本会提交的仲裁申请书、证据材料清单以及其他书面意见是由电子文档打印生成的, 请你方将上述电子文档发送至本案秘书的电子信箱中, 但内容仍以签字盖章的书面文件为准。

特此通知。

本案秘书工作由李红顺负责。

联系电话: (010) 65669856-276

传真: (010) 65668078

电子信箱: lihongshun@bjac.org.cn

北京仲裁委员会

2009 年 11 月 17 日



동방신기 3인(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이 중국에서 사기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동방신기 3인과, 국내 화장품 C사의 중국 합작회사인 '예자려'를 상대로 낸 고소장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

징시 하이텐구인민법원에 제출됐다.

이에 앞서 베이징중재위원회에는 동방신기 3인과 '예자려'를 상대로한 중재 요청서도 각각 제출됐다.

스포츠칸이 19일 단독으로 입수한 소장과 각종 증빙자료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고소인은 예자려의 상하이(상해) 강쑤(강소) 산시(섬서) 등의 총판을 맞고 있는 베이징구신세기문화전파유한공사(대표 고건문·이하 베이징구신회사)며, 사건의 법률대리인은 베이징시합천법률사무소의 진송 변호사가 맡고 있다.

人民法院诉讼收费专用票据 (一审结算)

No 01026331

账号: 09年11月14日 案号: () 字第 号

收款人	北京七新世纪文化传播有限公司		收款银行
案由			
负担诉讼费	一、案件受理费、申请费 (大写)		
	二、其他诉讼费 (大写)		
	其中: 1.		
	2.		
	3.		
	一、二项合计 (大写)	捌仟肆佰肆拾元	¥ 8475

1. 本票据于开具时正式收据。
2. 此联交收款人存查, 涂改无效。
3. 蓝诉讼收费专用章有效。
4. 本票据不得挂失。

诉讼费 专用章

负责人: 收款人: 经办人:

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诉讼费交款通知书 No 1174412

农业银行:

现有 捌仟肆佰肆拾元 交 () 审诉讼费

大写: 捌仟肆佰肆拾元 元 ¥ 8475 元

案由:

案号:

批准人:

立案人:

经手人:

注: 本通知7日内有效

예자려의 지역 총판사인 베이징구신회사의 고건문 대표는 소장에서 "예자려 측이 동방신기 3인이 이미 예자려에 가입했고, 예자려 회사의 이사(주주)라고 홍보해 이들이 화장품 홍보활동

을 할 것으로 믿은 채 각종 투자유치를 하고 사업을 벌였다"면서 "동방신기 3인은 하지만 지난 7월16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품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아 팬들의 불만 및 반품을 초래해 회사에 약 100만위안(1억7000여만원)의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동방신기의 멤버인 믹키유천과 시아준수가 이에 대해 직접 사과를 했지만 그들의 '사기'행위로 입은 손실이 커 결국 '사기피해관련배상 요청서'를 10월22일 동방신기 3인과 예자려에게 발송했다"면서 "그러나 기한내 답변이 오지 않았고, 심지어 기존 베이징에 위치한 예자려사의 사무실이 철거돼 관련 인물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소식은 현재 중국 포털사이트 소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동방신기 3인 사기 혐의 피소, 총판사 손해배상청구' 제하 기사로 일제히 소개되고 있다. 중국일보(차이나데일리) 인터넷판도 19일 이 소식을 발빠르게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내 화장품사인 C사 측은 "소송 내용을 파악 중"이라면서 "그동안의 사정을 파악해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억지라는 생각"이라고 반발했다.

관계자는 "그 총판회사가 동방신기에 대한 지나친 홍보로 영업을 해 한차례 주의를 줬으며, 이후 여러 이유로 총판계약을 해지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면서 "아울러 마치 하루아침에 회사를 없앤 걸로 묘사하고 있지만 회사 사무실이 중국 베이징시 소호에서 왕징거리로 이전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총판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关于被欺诈的赔偿请求函

致：尊敬的“东方神起”演唱组合成员
 金在中先生、金俊秀先生、朴裕仟先生
 暨
 韩国 WE# PLUS CO.,LTD 会社、睿姿丽（北京）化妆品有限责
 任公司、北京睿姿丽商贸有限公司和姜翰承先生

关于您们以“东方神起”演唱组合或其成员名义，伙同睿姿丽（北京）化妆品
 有限责任公司及北京睿姿丽商贸有限公司涉嫌对我公司进行欺诈一事，现向您们
 致函如下：

2009 年 01 月 06 日，在北京太阳宫索尼摩尔国际儿童城 5 层大山梦园商
 场，您们三位先生本人出席了睿姿丽（北京）化妆品有限责任公司（以下简称睿
 姿丽公司）召开的投资说明会，并向媒体及有关准备投资的各方人士介绍
 “Crebeau”品牌化妆品，并参与了一系列的招商活动，由于您们的影响很大，在
 场的歌迷很多，可以说盛况空前（见相关媒体报道，并有照片为证）。

2009 年 5 月 6 日，睿姿丽公司向本公司介绍，已聘请您们“东方神起”演唱
 组合担任“Crebeau”品牌产品的形象代言人，您们三位成员已加盟该公司成为该
 公司的股东（理事），并表示近期您们还要展开大规模宣传造势活动，眼见您们“东
 方神起”在中国大陆拥有大量的歌迷，有着极强的号召力，加上您们实际参与了
 招商活动，且睿姿丽公司有明确的承诺，于是，我公司与睿姿丽公司签署了《合
 作意向书》（见同名附件）。

2009 年 6 月 8 日，“Crebeau”的总公司韩国 WE# PLUS CO.,LTD 会社签署
 承诺书，同意为睿姿丽公司承担连带责任担保的承诺（见附件《承诺书》），其后，
 我公司立即投入近 30 万元资金用于租赁场地、装修、招聘人员等，完成了代理
 销售的准备事宜（有合同和相关票据为证）。

2009 年 6 月期间，您们与睿姿丽公司新注册成立了一家北京睿姿丽商贸有

동방신기 3인의 법률 대리인인 세종 측도 19일 스포츠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제 소송이어서 우리에게 소장이 건너오지 않았다"면서 "이 소송은 화장품 회사와 출판간의 문제라 본다"고 말했다. 또 "유명세를 이용한 또하나의 소송 사례로 받아들여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동방신기의 콘서트는 결국 일정 자체가 취소돼 21일부터 환불조치가 이뤄진다. 공연주관사인 명성거전문화예술공사는 "동방신기 멤버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수진기자 kanti@kyunghyang.com >- 경향신문이 만드는 生生스포츠! 스포츠칸, 구독신청 (<http://smile.khan.co.kr>) -© 스포츠칸 & 경향닷컴(<http://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